

2011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마치고

· 일시 : 2011년 4월 7일(목)~8일(금)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 DCC)

2011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4월 7~8일 이틀에 걸쳐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춘계 학회에서는 2,137명의 역대 최대 규모급 인원이 등록한 가운데, 논문 발표 편수도 초청강연 115편, 구두발표 65편, 포스터발표 1,012편 등, 총 1,192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학회도, 발표자 및 참석자들의 열의에 찬 모습과 이를 바탕으로 매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고분자학회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이신 The University of Tokyo의 Kazunori Kataoka 박사께서 의과학 분야의 hot topic인 '유전자/약물 전달체의 나노의학 적용'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 주셨고, KIST 명예연구원이시자 동양제강(주) 기술위원이신 최철립 박사의 롯데산학연협력상 수상기념강연을 통하여 고기능성 섬유소재의 학술적인 측면 및 산업적인 적용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일 오전에 열린 총회에서는 삼성고분자학술상에 하창식 교수(부산대), 기술상에 이충훈 박사(LG화학 기술연구원), 신진학술상에 김범준 교수(KAIST), 유필진 교수(성균관대), 박사 우수학위논문상에 3인, 석사 우수학위논문상에 1인에 대한 학회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고분자 연구논문발표회 학술프로그램은 고분자합성, 고분자구조 및 물성, 기능성 고분자, 고분자가공/복합재료, 분자전자소재 및 소자, 반도체용 고분자소재, 그래핀 과학과 기술, 스마트 필름, 고분자이론 및 시뮬레이션,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ra-nostic Macromolecules, Soft Matter Instability,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 대학원생 구두발표 등 총14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9개의 회장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발표와 심층 토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하신 회원 분들은 물론, 기조강연을 하신 Kazunori Kataoka 박사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학자들도부터도 어느 국제학술대회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연구발표들이라는 평을 들었을 정도로,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수준면에서도 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2010년 춘계학회부터 새롭게 시도된 대학원생 구두발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 1개 회장에서 진행되던 발표가 2개 회장으로 늘어날 만큼 그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부족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술대회 구두발표와 토론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무척 고무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학원생 구두발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소 현장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 및 결과와 논의되는 자리이므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 더욱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계학회 개최지로 다년간 사용되어 온 대전 컨벤션센터는 학회 세션 운영에 좋은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학회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회장이 운영 되었습니 다만, 특정 회장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각각의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인원을 예측하여 컨벤션센터 내의 각 회장 배정 및 확대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었고 또 이를 내년 춘계학회 시 적극 반영하면 매끄러운 세션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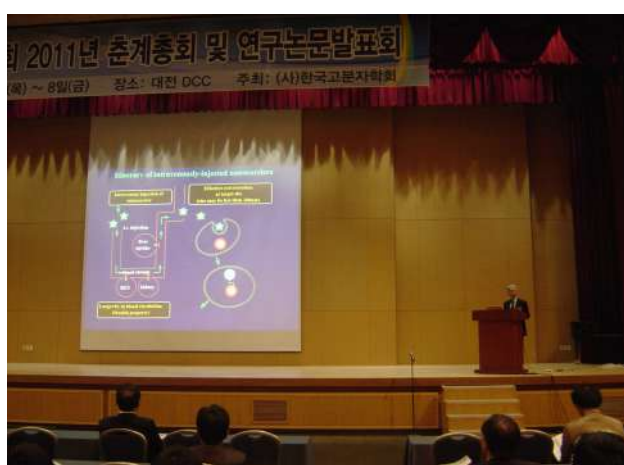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춘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도 포스터 발표 논문들 중에서 학술위원회에 의한 사전 및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께서 연구창의성, 연구내용 및 발표력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총29편의 응모 논문 중 8편의 논문을 우수논문발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기전시에는 총 25개 회사가 참여하여 29개 부스에서 전시홍보 행사를 하였는데, 전시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전시 부스를 참여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각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기기전시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고, 이에 따른 이벤트로 학회 마지막 날(8일) 마지막 행사로 약 2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응모한 회원 중 29명의 회원님들이 경품을 수령하는 즐거움을 만끽했고, 이 유쾌한 행사를 끝으로 이번 학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본 학술대회는 단지 경직된 학술대회가 아닌 모든 회원의 참여로 경쾌하고 즐겁게 진행되는 학술축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학회의 기기전시 준비 및 운영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기전시 업체들이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전시부스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본 학회 학술대회의 기기전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훌륭한 학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분자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들,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신 organizer 분들과 성공적인 세션 진행을 위하여 애써 주신 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부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 기업 및 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관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과, 학술대회

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차국헌 전무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담당해 주신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회 등록과 학회장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학생 staff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분자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사 이상천(경희대학교)>



<기조강연>



<총회장>



<우수논문발표상 수상자>



<신진연구자 소개>